

이야기 6 : 모세3 (홍해 바다)

주제말씀
[출애굽기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커다란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밝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어요.

아주 넓은 홍해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곳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을 쉬게 했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낸 바로왕은 곧 후회했어요.

그리고 곧 병사를 태운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쏜살같이 광야를 달려갔어요.

바닷가에 앉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 편에서 몰려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애굽의 군인들을 보며 두려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애굽의 병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바다를 건널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되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갔어요.

어느새 애굽의 병사들도 뒤쫓아 와서 바다를 건너려고 했어요.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뻗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애굽 병사들은 물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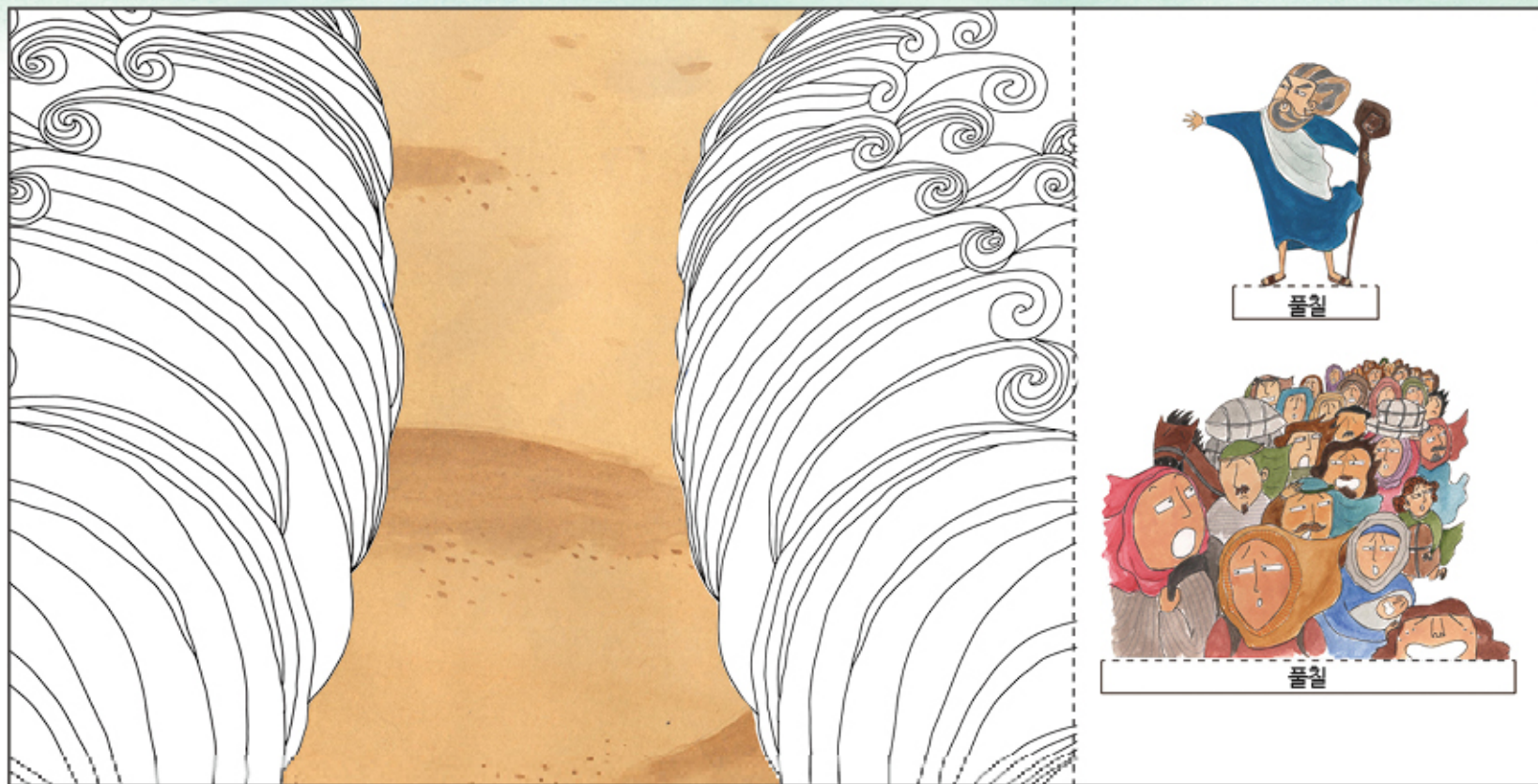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활동 1.

색종이를 흥해 바다에 붙이고 모세와 백성들을 오려 마른 땅에 붙이세요. (준비물: 색종이 가위, 풀)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출애굽기 14:13)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